

바텔, 한국을 바이오·에너지 리더로...

코트 회장, 동북아 R&D 거점 육성 ... KICOS와 한국진출 MOU 체결

미국의 종합연구기관인 바텔연구소의 카알 F. 코트 회장은 6월16일 “한국을 바이오, 소재 및 에너지 분야의 리더로 육성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코트 회장은 6월16일 과천 과학기술부 청사를 방문해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바텔연구소의 동북아 연구개발(R&D) 거점으로 설립 예정인 <바텔-코리아>의 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과학기술부가 발표했다.

코트 회장은 바텔-코리아의 기본 운영방향으로 ▲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(R&D) 지출의 최적화 ▲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신상품 생산지원 ▲신제품 개발과 벤처 설립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열거했다.

코트 회장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바이오, 재료, 대체 에너지 기술 등을 꼽은 뒤 “성과지향적인 연구관리기법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바텔연구소와 협력하면 한국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진단했다.

이에 오명 부총리는 “바텔이 제시하고 있는 재료, 바이오, 에너지 분야 등에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”이라며 바텔-코리아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한편, 코트 회장은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전담기관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(KICOS)의 유영수 사무총장과 바텔연구소의 한국진출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6/20>